제2009-4호

한 국 사 회 학 회 소 식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Newsletter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발 행 일 : 2009년 12월 31일
전 화 : 02-722-8747
팩 스 : 02-722-8746
홈페이지 : http://www.ksa.re.kr
이 메 일 : admin@ksa.re.kr
발 행 인 : 김문조
편 집 인 : 김준우
간 사 : 이정은

Ⅰ. 한국사회학회 전임 학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신년 첫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의 후원과 음덕으로 회장직을 완수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해 올립니다.

모든 학문이 본연의 존재 가치나 정당성을 지니고 있듯,
여러분께서도 사회학에 대한 각별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타 학과에 비해 엄정한 자기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성찰적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사회학 하기"의 의미를 항시 되묻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자본주의에서 공공사회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들을
기획하면서 저 역시 연이은 행사가 “학폐”를 끼치는 부담스런 일이 아닐까
자문자답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표자, 토론자 혹은 청중으로 참여해주신
진성(眞性) 회원분들이 많으셨기에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나 모금의 중압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임기 후반기에는
신진 사회학도의 경력개발이나 활로 문제에 주력해 보고자 했으나
신상 변화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임기를 다하게 되어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후 기회 닿는 대로 그러한 과업을 자청해 맡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 일년 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격려하며 도와주신 이은진, 이윤희 부회장님,
그리고 이윤석, 정일준 이사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및 국영문 학회지 발간을 위
해 애써주신 함인희, 김동노 편집위원장님 및 편집위원 모든 분들, 또 어려운 학회
살림을 주관해 주신 이정은 사무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양영진 회장님께서 이끌어나가실 학회에 지속적 관심과 후원을 당부하오며,
가내 건강과 더불어 새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51대 한국사회학회 회장
김문조 올림

Ⅱ. 공지사항

이사회 및 총회 소식

2009년 한국사회학회 제4차 이사회

○일시: 2009. 12. 18. 오후 12시
○장소: 고려대학교 프로방스
○안건: 200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09년도 한국사회학회 정기총회

○일시: 2009. 12. 18. 오후 5시 20분
○장소: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605호
○안건:

1. 2009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 2009년도 감사보고
3. 제 51대 회장 김문조 교수(고려대) 퇴임
4. 제 52대 회장 양영진 교수(동국대) 취임
5. 2011년도 제 53대 회장으로 박재묵 교수(충남대) 선출
6. 제 10회 한국사회학회 논문상 시상
7.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보고
8. 기타 학회 운영건

2009년 논문상선정위원회 소식

제10회 한국사회학회 논문상 (2009년 12월 18일)

○ 김동일(서강대 사회학과)
- 『전후(戰後) 한국화단의 양식투쟁 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제42집 6호, 2008년)

○ 김영미(중앙대 사회학과 BK21 박사후 연구원) · 한준(연세대 사회학과)
-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1982~2004』
(한국사회학 제42집 7호, 2008년)

Ⅲ. 학술모임

2009년도 한국사회학회 제2차 기획심포지엄

- 주제: “미디어 융합의 사회적 의미”
- 일시: 2009년 10월 20일(화)
- 장소: 인천대
- 주최: 한국사회학회, 한국미래연구원
- 주관: 인천대 윤리사회복지학부
- 후원: SK텔레콤, 중앙일보, 한국정보화진흥원
- 중앙일보에 보도 (2009. 10. 20)





디지털 융합은 접속성과 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정보통신 기기, 경로, 컨텐트 및 조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초(超)경계적 이합집산 과정을 뜻한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융합이라는 주제를 사회학적으로 다룬다. 미디어 융합을 인과도식의 원인 범주로 간주하고 미시적 인간관계에서 거시적 사회구조, 가시적 생활환경에서 내면적 의식세계, 실제 현실에서 가상세계에 이르는 사회적 행위 공간 전면에서 진행되는 후속적 융합 효과를 내재적 의미와 더불어 논의한다.

새로운 관점을 꾸준히 제시해온 프랑스 사회학자 Michel Maffesoli의 기조강연 “컨버전스의 의미와 21세기의 인간”을 시작으로, 디지털 컨버전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디지털 컨버전스와 관련된 구체적 현실에 기반하였다는 점이 논문들의 공통점이었다. 배영(숭실대 정보사회학과)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논쟁점을 분석한다. 아이폰과 트위터의 결합을 전망하는 그는, 정보의 질이나 다른 형태의 격차와 같은 새로운 문제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조동기(동국대 사회학과)는 "입소문의 형성과 전파"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 조영환(ETRI)은 화학적 결합으로서의 융합을 강조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명진(고려대 사회학과)은 새로운 기술발달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사회갈등을 다루면서, 기회, 소통, 신뢰, 협력에 기초한 갈등치유의 방안들을 제시한다. 유승호(강원대 영상문화학과)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소통 현실을 유형화한다. 온라인상의 테러행위나 느슨한 감시가 이러한 예들이다.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과)는 컨버전스 현상을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바라본다. 바비인형, 카멜레온, 트랜스포머에 비유한 그의 융합정체성 논의는 유쾌하면서도 유익하다.

2009년도 한국사회학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 주제: "방통융합에 따른 가치 패러다임 변화와 함의"
- 일시: 2009년 10월 30일(금)
- 장소: 서울파크하얏트 호텔
- 주최: 한국사회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년도 한국사회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제학회 대토론회

- 주제: "한국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 일시: 2009년 11월 18일(수)
- 장소: 명동 은행회관
-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 후원: 국무총리실, 미래기획연구회, 조선일보

2009년도 한국사회학회·부산대BK21사업단·경남대사회학전공 공동심포지엄

- 주제: “지역의 시각에서 본 대안적 자본주의”
- 일시: 2009년 12월 11일(금)
- 장소: 경남대학교
- 주최: 한국사회학회, 부산대BK21사업단, 경남대사회학전공

2009년도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

- 주제: “한국 공공사회학의 과제와 전망”
- 일시: 2009년 12월 18일(금) ~ 19일(토)
- 장소: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인촌기념관
- 주최: 한국사회학회
- 주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통합세션 및 한일세션, 외국학자세션 개설





‘사적 골치거리’를 ‘공적쟁점’으로 전화시키는 힘을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규정한 바 있는 C. W. 밀즈의 표현과 같이, 공적인 영역을 강조한다는 의미의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라는 이름을 단 2009년도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가 12월 18-19일 동안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09년도 후기사회학대회에서는 국가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공사회학을 대변하는 정책사회학과 현장사회학에 관한 통합세션을 통해 한국 사회학의 공공성 문제를 재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특별세션, 한일 사회학자 특별세션, 외국학자 특별세션, 대학원생 특별세션 등과 더불어 250여명의 연구가들이 참여하는 총 38개의 발표회를 준비되었다.



정책사회학과 현장사회학를 대비시킨 통합세션은 박형준(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장하는 국정이라는 공공분야에서 가치와 정책을 강조하면서 시작된다. 조은(동국대 사회학과)은 1986년 사당동 철거 재개발 과정을 영상에 담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다. C. W. 밀즈의 고민과 관련해서, 그는 사회학자가 자료로 손을 더럽힐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외국학자 특별세션이라는 형식도 눈길을 끌었다. Anthony Woodiwiss(서울대 사회학과)는 현대사회이론의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Mark D. Whitaker(이화여대 사회학과)는 역사적 종교활동에서 환경운동적 요소를 찾아내며, Blaz Kriznik(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은 왕십리 뉴타운개발과 서울시민을 연결시킨다.

Ⅳ. 출판활동

<한국사회학> 2009년 제43집 5호 발간

<한국사회학> 2009년 제43집 5호에서는 연구논문 9편과 서평 5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논문>

▪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 김홍중

▪ 계급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관한 연구 :
합리적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 김위정 · 염유식

▪ 한국 공공부문 임금 결정에 대한 연구 / 신광영

▪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의 복합적 양상과 노년기 적응 / 김주현

▪ 텔레비전 광고의 한·일 노인 정체성 비교/ 김선영

▪ 문화적 취향의 분화와 계급: 음악장르를 중심으로/ 양종회

▪ 청소년과 디지털 참여: 커뮤니티의 감성적 상호작용 분석을 중심으로 / 윤명희

▪ 청소년 음주에 관한 원인 분석: 종교성을 중심으로/ 김정규

▪ 복지국가 의료개혁의 보건 관련 성과와 의료 탈상품화의 정치:
영국,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의료개혁 비교연구/ 이상일

<서평>

▪ 공공성을 위한 성찰: 과정과 원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김상준) / 최 현

▪ 교육과 사회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과 사회이동』(장상수) / 정기선

▪ 현대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 관계를 주조한 미군정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해방 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이혜숙) / 정일준

▪ 한국은 다문화사회인가?
『다문화사회, 한국』(김은미·양옥경·이해영) / 윤인진

▪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
『산업과 도시: 내생적 지역발전은 가능한가』
(조형제) / 심상완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09년 제43집 6호 발간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09년 제43집 6호에서는 연구논문 7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RTICLES>

▪ Changing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Koreans / Tae Kook Jeon

▪ Determinants of Public Opposition to Siting Waste Facilities in Korean Rural Communities / Doo-Sik Kim

▪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Sociological Academic Community
/ Jae-Woo Kim

▪ Environmental Turbulence and Organizational Change: Niche Expansion and Organizational Growth in the Population of Hospitals in Korea, 1980-2008
/ Dong-Il Jung

▪ Dr. Hwang Scandal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s of Science: Characteristics of Dr. Hwang's Politics of Science / Yi-Jong Suh

▪ Latent Classes of Metabolic Syndrome in the Korean Population: Identification and Comparison of Classes among Different Educational Groups/ Keun-Bok Lee and Yoosik Youm

▪ Correlates of the Item Non-Response in Survey Research: Analysis of the KGSS Cumulative Data, 2003-2007 / Sang-Wook Kim

RESEARCH GUIDE
Korean Society in Change: Statistics and Sources (IV)

Ⅴ. 회원동정

부고

○ 경상대 사회학과 지승종 교수 부친상 2009년 10월 16일 별세
○ 경북대 사회학과 김규원 교수 빙부상 2009년 10월 27일 별세
○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조모상 2009년 11월 16일 별세
○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최병목 교수 부친상 2009년 11월 28일 별세
○ 고려대 사회학과 박수호 박사 부친상 2009년 12월 23일 별세
○ 강원대 사회학과 전태국 교수 모친상 2009년 12월 31일 별세

보직

○ 장진호
광주과기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로 임용 (2009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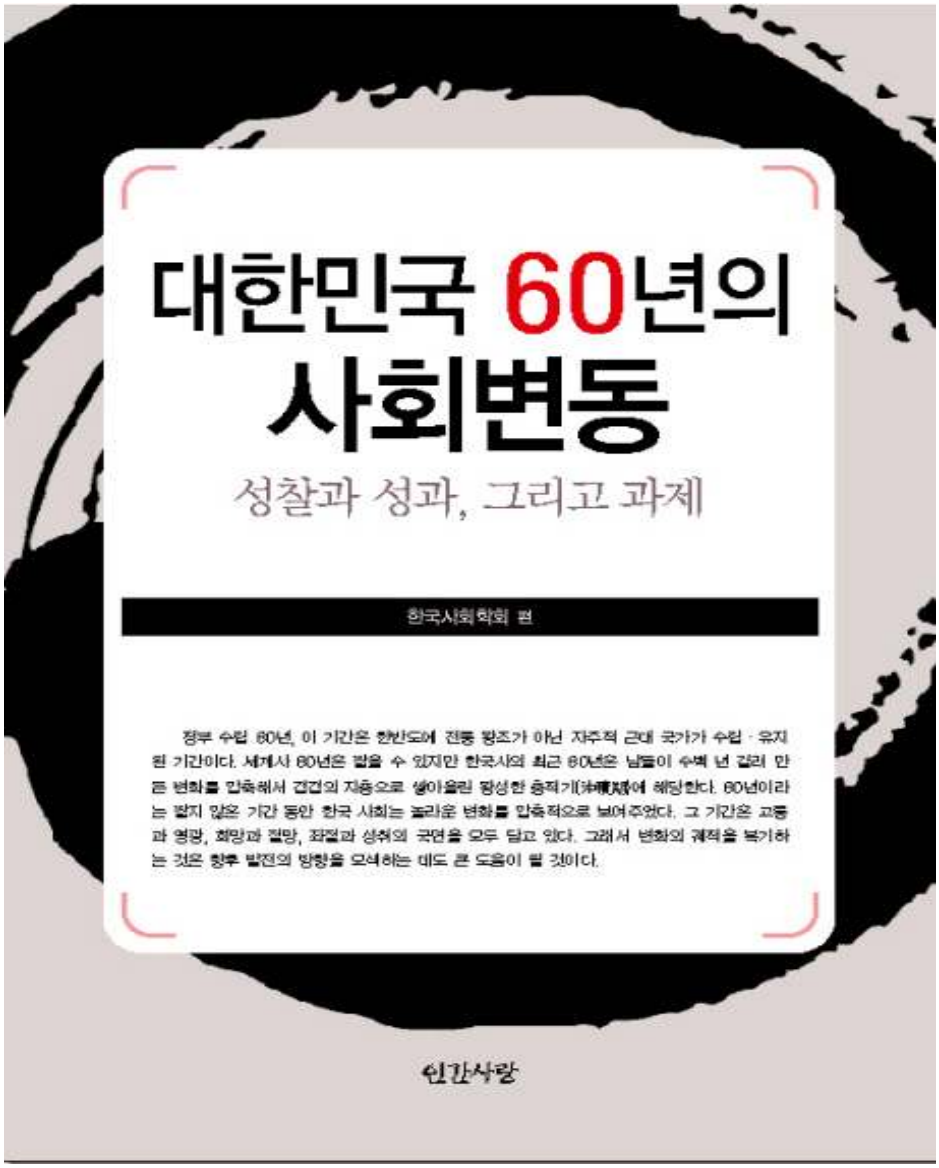
안식년

○ 김병조(국방대학교)
안식년(2009. 12. 15 - 2010. 12. 14) : 일본 방위연구소

회원 출판소식

○ 한국사회학회

<<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 성찰과 성과, 그리고 과제>>, 인간사랑, 2009.12



이 책은 대한민국 60년의 성찰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 다룬다.저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60년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통일정책의 변화까지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목차>

서문
제 1 부 대한민국 60년의 성찰

1.대한민국 민주주의 60년을 보는 시각
2.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 “사회의 질”제고를 위한 비전
3.기술사회의 도래와 위험

제 2 부 대한민국 60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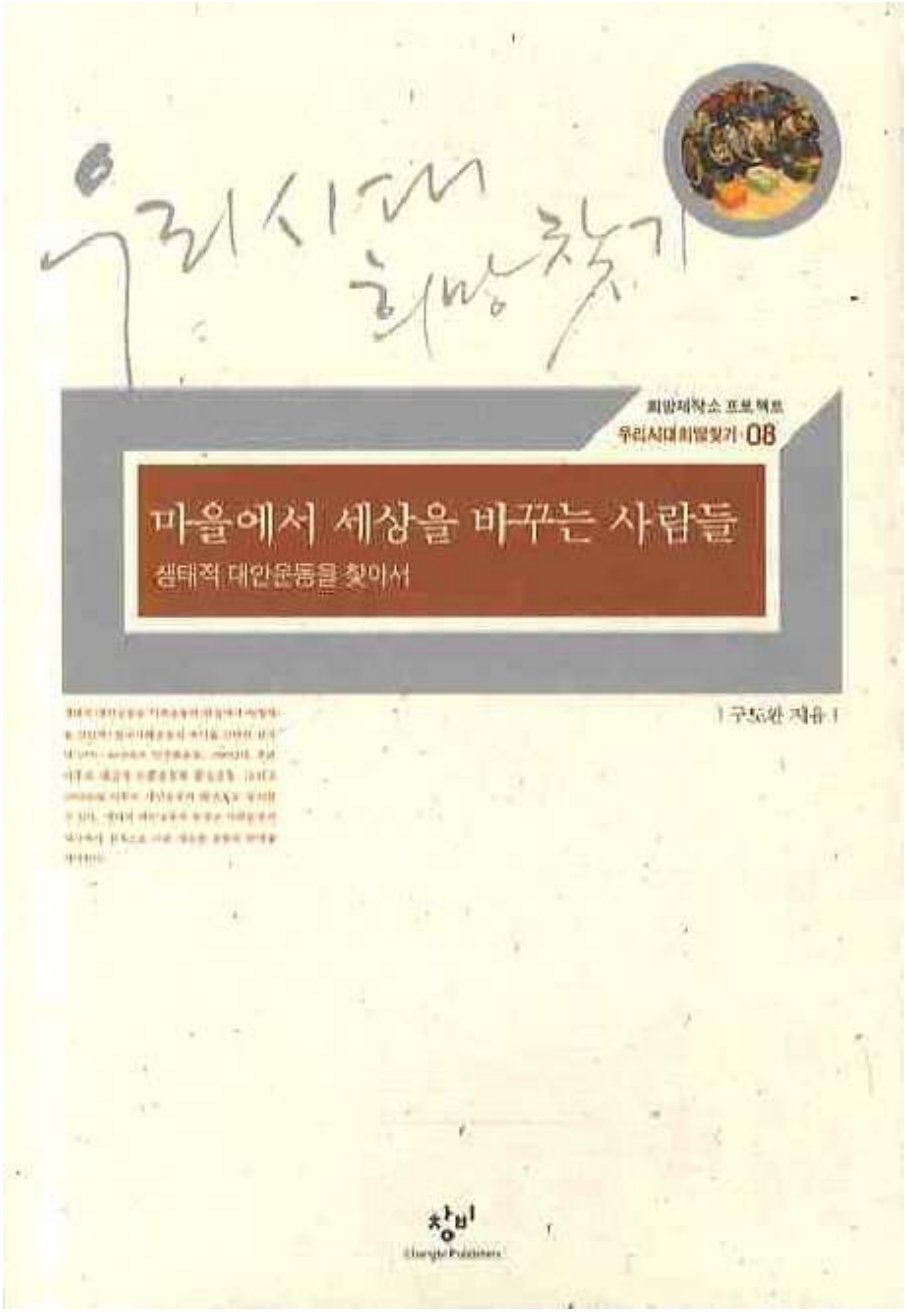
4.시민사회와 시민운동
5.건국 후 한국의 산업 및 직업구조 변동
6.가족제도의 다원화와 미완의 양성평등
7.교육입국에서 교육 부국으로
8.아파트 주거문화의 보편화
9.IT와 한국사회 : 넷(NET)의 사회학

제 3 부 대한민국 60년의 과제

10.세대 계승과 갈등 : 사회문화적 변동의 맥락에서
11.사회양극화와 복지패러다임
12.환경문제의 역사 : 산업공해, 환경훼손 그리고 환경위험
13.종족적 소수자와 한국사회 : 극단적 배제에서 차별적 통합으로
14.분단사회에서 통일사회로 : 통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생태적 대안운동을 찾아서>>, 창비, 2009.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80년대의 민주화운동,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계급적 민중운동과 통일운동,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시민운동이라는 궤적을 그려왔다. 계급적 민중운동의 표본이던 현실사회주의가 낳은 국가주의·산업주의는 환경파괴와 개인의 억압이라는 문제를 낳았고, 시민운동은 2000년대 이후 점차 제도화되면서 체제 변형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런 사

회운동의 역사에서 최근 등장한 생태적 대안운동은 기존 운동들과 질적으로 다른 운동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우선 생태적 대안운동의 '생태'는 자연이나 환경 같은 좁은 의미를 넘어 사회적 호혜와 연대, 자율, 내적 성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생태 개념에 기반한 대안운동은 기존의 대안적 진보운동이 빠지기 쉬운 성장주의를 비판할 뿐 아니라 개인이 계급·민족·조직에 용해돼버리는 지금까지의 사회운동과도 거리를 두며 자유·호혜·생태적 정체성을 체현한 개인이라는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또한 미시정치와 거시정치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운동을 탈피해, 마을이라는 자율적 연대로 구축된 작은 진지를 거점으로 근대·산업자본주의·국민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물론 생태적 대안운동은 자율적 공동체를 통한 대안의 모색이기보다 자칫 섬처럼 고립된 자신들만의 유토피아에 빠질 위험이 있다. 생활협동조합의 먹거리운동이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먹는 부자들의 '보신(保身)주의'로 변질되거나, 생태적 대안운동이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곤 하는 사회적 기업처럼 기존 체제를 넘어서기보다 보완해주는 데 멈춰버릴 수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반자본·반산업주의·반국가를 강조하는 생태적 대안운동이 은둔주의·고립주의·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밖과 국가, 지구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저자는 당부한다.

이처럼 생태적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우애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자는 인터뷰했다. 우선 마을에 살면서 세계를 바꾸려고 애쓰는 마을공동체(서울 성미산마을, 부산 반송 희망세상과 물만골공동체, 경남 산청 안솔기마을)와 원하는 일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윤보다는 개인의 자유, 사회적 호혜와 협동, 생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대안경제(사회적 경제)를 실험하는 사람들(서울 한살림과 신나는조합, 원주 협동조합협의회와 밝음신협, 인천 평화의료생협, 사회적기업인 아낙과사람들·노리단·페어트레이드코리아·키친아트·애자일컨썰팅)을 만났다. 또한 자원을 낭비하는 도시와 공업적 생산방식은 생태적으로 지속불가능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대안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전북 부안 시민발전소, 경기 시흥 연두농장, 경기 안산 텃밭공동체, 전북 남원 한생명,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팀의)과 어른들의 불안·욕망·경쟁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한국 교육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안교육을 실현하는 사람들(도서출판 민들레, 경남 산청 간디학교)도 만났다. 끝으로 우리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같은 소수자들의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서울 여성의전화, 이주노동자쎈터, 이랜드 일반노조)의 목소리도 담았다.
물론 생활 속의 자율적 대안운동이 생활을 넘어 생태적이고 평화적인 연대라는 보편적 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쓰고,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의료생협에서 진료받고, 대안학교에서 평생공부를 실천하며, 마을에서 이웃과 토론하는 마을공동체가 이곳저곳에서 많아진다면, 자본-산업-국가라는 삼각동맹의 철옹성은 흔들릴 것이다. 이

처럼 마을 안에서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둘 연대를 확장하다보면 마을뿐 아니라 지역과 중앙정부까지 바꿀 수 있으리라 저자는 확신한다.

<목차>

책머리에-이야기로 들어본 새로운 세상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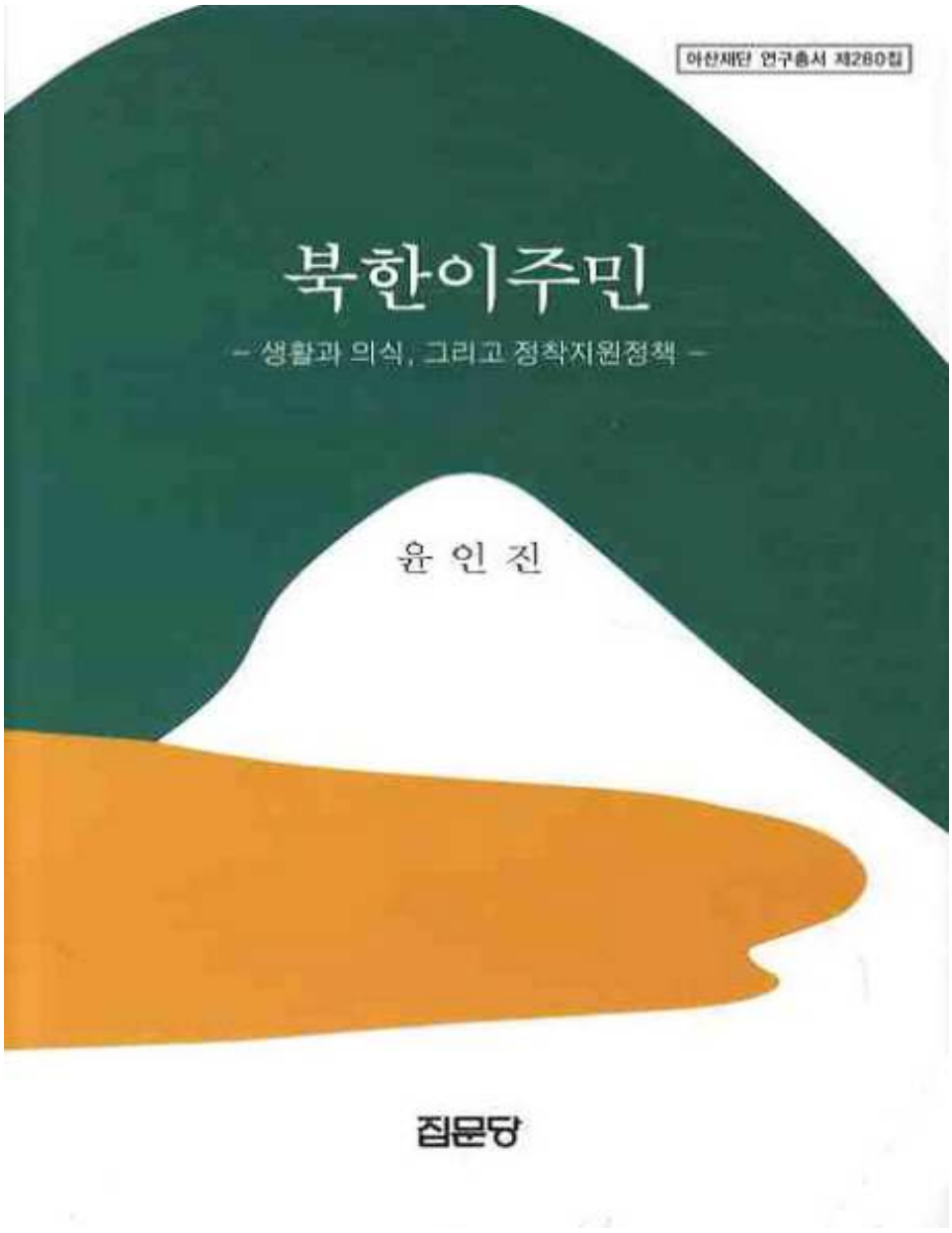
제1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1장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
2장 협동하는 대안경제
3장 농촌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
4장 학교를 넘어, 대안학교를 넘어
5장 차별 없는 세상

제2부 불안한 사회에서 새로운 세상 만들기
6장 욕망과 불안을 넘어선 행복
7장 사람, 소통, 그리고 신뢰
8장 무엇이 문제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9장 국가와 시민사회를 넘어서
10장 새로운 세상의 꿈
11장 새로운 인간, 새로운 정치

맺음말-마을을 넘어서

○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 정책>>, 집문당, 2009.11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해서 정착한 사람들은 예전에는 '귀순용사'로 불리다가 이제는 '탈북자'라고 불리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탈북자는 소수였고 정치군사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았다. 그러나 탈북이 일상화되고 국내 거주자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정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들을 '이주민'의 시각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새로운 체제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의 과정과 문제를 소수자와 이주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주민이 탈북해서 제3국에 체류하다가 국내로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탈북 후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 국내 입국 후 사회적응의 과정과 문제, 태도·가치관·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재외탈북자의 보호와 국내 북한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북한이주민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착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3장 재외탈북자 실태
제4장 북한이주민의 생활과 의식
제5장 북한이주민 가족, 여성, 청소년
제6장 북한이주민 지원정책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김형기(경북대), 김윤태(고려대) 편집**

<<새로운 진보의 길: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 한울출판사, 2009.4



이 책은 새로운 진보적 이념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학자들의 글을 모았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의견 교환을 통해 모든 글들이 가능한 차이점을 줄이고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했다.

지난 2008년 대선 패배 이후 정당과 노동계와 학계와 시민사회의 진보진영은 왜 진보의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별개로 분산적으로 암중모색하고 있을 뿐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화이부동'하는 자세로 대연합을 만드는 정치적 실천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국민적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진보진영의 통일된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보의 비전과 정책의제의 제시,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수행해야할 과업이다. '한국의 새로운 진보'라는 제목을 단 이 책은 이러한 과업의 수행에 동참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 가운데 어떤 글은 거시적 담론과 장기적 방향을 다루기도 하고, 다른 글은 세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정치,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남북관계 분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앞에서 소개한 3개의 논문(김형기, 김호기, 김윤태)은 새로운 진보의 전체적인 방향을 다룬 총론적 성격의 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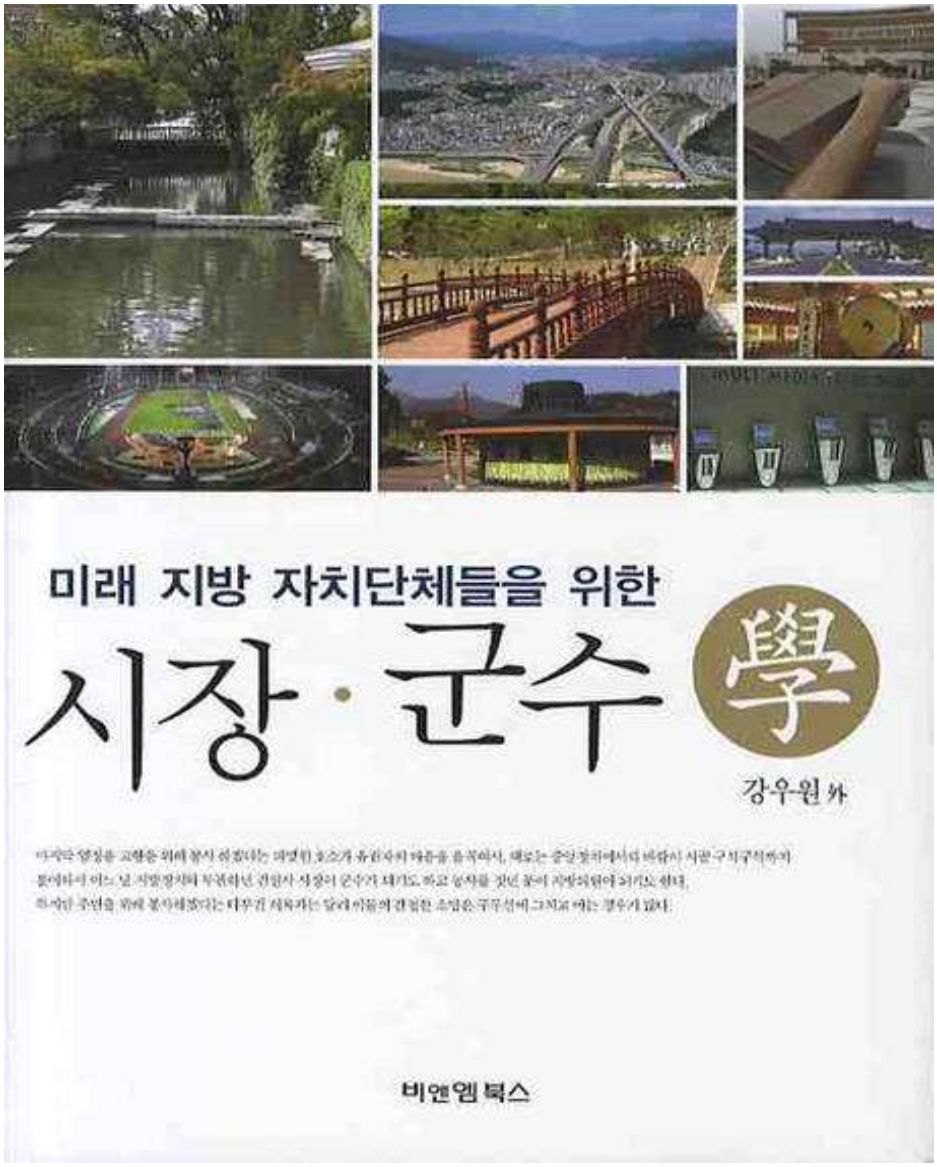
<목차>

서론: 한국의 새로운 진보를 찾아서 - 김형기, 김윤태

1.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진보의 길 - 김형기
2. 제3의 길과 한국적 중도진보 - 김호기
3. 새로운 진보와 한국정치 - 김윤태
4.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과 미래의 대안: 신유목적 민주주의, 신공화주의, 신연방주의 - 임혁백
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유종일
6. 한국경제의 제3의 길: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김형기
7. 복지정책, 새로운 진보의 아킬레스건인가? - 이태수
8.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건설론 - 양재진
9.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실업대란'을 중심으로 - 박태주
10. 한국형 고용전략의 모색 - 전병유
11. 지속가능한 교육 - 김규원
12.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과 대학의 역할 - 임경순
13. 한국의 대국가전략: 동북아 삼각 균형의 구축 - 임혁백
14. 남북관계 60년의 평가와 과제: 대북정책의 관점에서 - 김근식

○ **김형균(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장군수학>>, 비앤엠북스, 2009.10, 강우원 외 16인 공저



크게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는 기초다지기로 지자체발전의 밑그림을 짜는 지방자치행정의 이해, 선거공약만들기, 정책개발 등이며 제2부는 각 분야별로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관광, 문화, 위기관리 등의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는 함께하기 편으로 거버넌스, 지방의회 등과의 관계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져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없는 자치단체장을 위한 지시사항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세종사이버대 강우원 교수의 기획으로 발간된 이 책은 전국 각 분야의 전문가 16인이 공동집필하였다.

<목차>

서문

1부 기초 다지기
2부 실천 프로그램 만들기
3부 함께하기

부록

신입회원

○ 권혜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 김여진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김영주 -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 김원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김인수 - 육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 김현우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 남상우 - 충남대학교 스포츠사회학 연구실
○ 박순열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서증원 -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 서효정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송수연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송영호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신지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안정국 -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 이상붕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이주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진호 -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 정세아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 최슬기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최인희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허종호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Ⅵ. 기타공지

분과학회 및 연구소/ 학교/ 학과 공지

● **한국비교사회학회 차기 임원진 선출** (2009년 11월 6일)
(임기 2년 : 2010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회　장: 전남대 사회학과 국민호 교수
부회장: 한신대 사회학과 김현희 교수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
총　무: 연세대 사회학과 원재연 교수
　　전남대 사회학과 김준우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신종화 교수
감　사: 고려대 김철규 교수

뉴스레터 공지 이용 안내

뉴스레터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활동(저서출간, 보직, 안식년, 출장 등)과 변동사항(주소, 전화번호, 직위 등)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학과 활동 등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학회사무실(Tel : 02-722-8747, Fax : 02-722-8746, E-mail : admin@ksa.re.kr)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